

## 7개 장소에서의 좌석선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기원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정된 일부 공간에서 어떠한 형태의 좌석선호를 보이는 지를 보기 위하여 강의실 160명, 도서관 240명, 지하철 140명, 버스 287명, 교내식당 140명, 교내매점 120명, 그리고 영화관에서 304명을 관찰하였다. 이들 공간에서 앉을 수 있는 전체 좌석 중 10%의 좌석이 찰 때까지를 선호되는 공간으로 보았을때 강의실에서는 문쪽으로부터 먼 곳에 그리고 뒷쪽에 위치한 좌석에, 도서관에서는 출입구로부터 먼 곳과 벽쪽에,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는 곳이나 그 반대쪽의 가운데 보다는 가장자리에, 버스에서는 통로를 중심으로 창가에 그리고 뒤쪽보다는 앞쪽과 가운데에, 교내식당과 매점에서는 배식구나 판매대로부터 가까운 곳에, 그리고 영화관에서는 출입구로부터 반대쪽과 스크린으로부터 뒷부분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였다. 이들 선호되는 개인공간이 갖는 함축적인 의미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혼자만의 공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공간을 더 공유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간에 대한 통제감 상실과 무력감은 물론이고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인간-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들의 잘 수립된 검증들의 하나는 설계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 간의 도식화된 개념이 다르고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나 선호도에 있어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가나 비평가의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의 의미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정무용 역, 1990). 그리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선호는 일단 환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홀히 여겨져 왔다. 공공시설에

서 특정한 공간에 대한 선호에는 각 개인의 취향에 다른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선호경향을 알아내는 것은 공공시설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 보수 정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통찰을 줄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공환경의 설계 및 시설에 심리학적 지식에 활용된 사례가 극히 적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선호되는 공간을 심리학적 접근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관련된 개념들에는 개인공간(personal space)과 영역성(territoriality)이다. 개인공간은 Katz(1973)가 처음 쓴 용어로서 다른 사람들이 안으로 침범할 수 없도록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라고 하였다. 이 개인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확장되거나 수축도 된다. 이 개념은 심

\* 이 논문은 97년도 호서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리학에서만 있는 독특한 개념은 아니며 생물학에서도 (Heidger, 1950), 인류학에서도(Hall, 1968), 그리고 건축학에서도(Sommer, 1959)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개인공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관심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고조되어 왔다. 실제로 이 분야를 다룬 문헌들은 300여 편에 이른다(Aiello & Thompson, 1980b; Altman & Chemers, 1980).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완충지대로서 개인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들이 제기된 바 있다. 첫째는 주변에 있는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자극이(예를 들면, 불쾌한 냄새 등)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정보처리에 과부하를 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부하를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인공간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Evans, 1974). 둘째는 주변의 다른 사회적 물리적 대상들로부터의 행동상의 자유가 침해될 것에 대비하여 일정한 대인공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인공간을 유지하면 적절한 수준의 사밀성과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Altman, 1978). 셋째로 개인공간을 유지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간의 거리는 서로 교환하는 자극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는 것이다(Hall, 1963; 1966). 또 다른 시각은 유기체들 간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하여 진화과정상 변형된 것으로 본다(Evans & Howard, 1973). 그러나 인간의 대인공간은 그러한 본능적이고 진화론적인 것보다는 문화권 안에서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도 있다(예: Altman, 1975; Duke & Nowicki, 1972). 그리하여 개인공간은 생애주기 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고 개인이 놓여 있는 특정한 상황맥락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임만택 역, 1992).

한편, 영역성은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고정적이며 그 경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말한다. 또한 영역들은 개인공간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영역 내에 있건 밖에 있건 여전히 개인공간은 유지하게 된다(Sommer, 1969). 영역권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소유권 지각으로서 한 유기체나 유기체들이 모인 집단들이 보이는 인지와

행동들이나 것이다. 영역행동은 유기체의 중요한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며 어떤 지역을 차지하거나, 사유화, 방어하는 것들로 구성된다. 영역권을 보이는 행동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보이지만 인간에 있어서는 영역의 사유화 정도, 점유기간, 침해시 방어할 가능성에 따라서 일차영역(예; 가정, 사무실), 이차영역(예; 교실), 그리고 공공영역(예; 해변)으로 나눌 수 있다(Altman, 1975; Altman & Chemers, 1980).

공공시설물의 이용시는 영역성보다는 개인공간의 개념이 더 관련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보다 효율적인 공간 이용을 위한 제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개인공간의 상황적 요인인 대인매력, 유사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개인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인공간의 개인차 요인인 문화적 차이, 성차, 연령, 성격, 물리적 요인 등이 개인공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해 오고 있다. 또한 개인공간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학교, 병원, 상담장면, 대합실 등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촉진적인 공간의 형태는 어떠한지, 개인공간을 침범하거나 침범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지를 구명해 오고 있다.

사람들 간의 개인공간을 유지하는 현상은 좌석 확보에서 볼 수 있다. 지하철 이용시 객실의 좌석이 다 찰 때까지 사람들 사이의 좌석을 비워두려고 하고, 도로 위에서 길을 가다가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위협적이라고 느끼면 그를 우회하려고 할 것이다. 자신이 있는 장소, 자신의 처지, 그리고 자신의 자세는 타인과 상호작용시 어떻게 처신하리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이러한 기대는 특정한 집단이나 맥락에서 학습되어 온 것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공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공간도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을 때도 대화의 간격을 유지하고, 승강기 안에서 피치 못할 공간침해시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윤홍섭 역, 1995). 또, 전형적으로 교실에서는 중간 앞쪽에 앉은 사람들의 성적이 더 우수하였다(Becker, Sommer,

Bee, & Oxley, 1973; Kinarchy, 1975; Sommer, 1969, 1972). 또,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거리를 다룬 연구에서는 의자의 배열이 사회구심적으로 되어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더 좋으며, 의사와 환자의 거리에 있어서도 적절한 거리가 있음이 밝혀졌다(Brokemann & Moller, 1973; Lassen, 1973; Odmund, 1957). 도서관의 좌석이용시도 선호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학습에 능률적인 위치를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김호선, 1983).

앞에서 보았듯이 좌석선호패턴을 통한 대인공간의 확보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나, 교실, 도서관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만 연구가 알려져 있으나, 버스, 지하철, 매점, 극장 등에 대한 연구는 알려져 있지 않다. 더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경험적인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안에서 생활양식의 차이가 있고, 상이한 행태를 보일 수 있다. 문화는 사회체제, 규범, 관습 등을 공유하여 같은 세계관, 신념, 가치를 낳게 된다. 이러한 세계관, 가치, 규범 등이 생활양식을 만들고, 이 양식이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시 구체적인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패턴을 가져올 수 있다(임승빈, 199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등의 과정에 참여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위한 탐색적인 첫 단계로서 강의실, 도서관, 미술관, 극장, 지하철, 버스, 영화관 등 7곳의 장소들에서의 좌석 선호패턴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세가지의 다른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우선, 개인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모의상황법(simulation methods)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피험자들이 여러 실험조건들에서 인형 또는 상징적 형상들의 개인공간을 조변하는 방법이었다. 두 번째는 실험실 실험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음을 아는 피험자들 간의 개인공간을 실험조건들을 달리하여 관찰하였다. 세 번째류의 연구들은 현장실험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에서, 개인차 또는 상황변인에 따른 개인공간의 차이를 관찰하거나 실험하였다.

여러가지 다른 접근방법들을 사용해서, 상황변인들과 개인차 변인들 간의 많은 중요한 관계들과 개인공간의 크기 등이 밝혀져 왔다. 다소 일관된 결과를 낸 연구들도 있으나(Duke & Nowicki, 1972; Knowles, 1980; Little, 1965), 연구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들도 나왔다. Knowles와 Johnsen(1974)은 개인공간을 다룬 여러 연구방법들 간에 때때로 일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만 연구의 수렴 타당도의 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예, Jones & Aiello, 1979)은 개인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측정 방법들은 동일한 것을 재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대체로 실험실실험법과 현장실험법이 모의상황법보다 일관되게 더 나은 측정법인 것으로 나와(Aiello & Thompson, 1980b; Hayduk, 1978; Love & Aiello, 1980), 연구자들은 연구를 계획할 때나 상이한 결과들을 해석할 때에서나 모두 이들 방법들을 선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별된 7개 공간에 대한 상시적이고 직관적인 생각들을 현장관찰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연구자가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로 조사한 예비연구에서 얻은 강의실, 교내매점, 버스, 지하철, 도서관, 그리고 영화관의 좌석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관찰로서도 확인되는 지를 보고자 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1)지정좌석제가 아닌 강의실에서 앞쪽보다는 중간 이후에, 그리고 문쪽으로부터 가까운 쪽에 더 높은 좌석선호를 보이고, (2) 교내매점에서는 상품진열대로부터 뒤까지 배열된 좌석들 중에서 통로쪽이나 구석보다는 가운데 좌석이 선호되며, (3)버스에서는 앞쪽보다는 뒤쪽에 그리고 통로쪽보다는 창가에 더 높은 선호를 보이고, (4)지하철에서는 좌석 중 출입구로부터 맞은편, 그리고 좌석 끝쪽이 중앙의 좌석보다 선호도가 높으며, (5)도서관에서는 열람실 내의 좌석들 중 안쪽의 좌석이 선호되고 출입구쪽과 통로쪽에는 낮은 선호를, (6)영화관에서는 주변보다는 중앙부분에 그리고 왼쪽보다는 자막을 쉽게 볼 수 있는 오른쪽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실증적인 관찰을 통해서도 나오는 지를 탐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 방 법

### 관찰대상자

본 연구는 강의실에서 160명, 도서관에서 240명, 지하철에서 140명, 버스에서 287명, 식당에서 140명, 매점에서 120명, 그리고 영화관에서 304명 등 총 1491명을 관찰하였다. 위의 선정된 7개 장소에서 전체좌석 중 약 10%의 좌석이 점유될 때까지를 선호된 좌석으로 보고 선호되는 패턴을 분석하였다.

### 관찰자

관찰자들은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조사방법론 수강생 45명이었고 이들은 4-5명씩 선별된 공간에서의 관찰 방법을 사전에 교육받고 관찰에 임하였다. 관찰자들은 97. 5. 26 - 6. 25 사이에 위의 7개 장소에서 관찰대상자들의 좌석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장 불편한 자리를 골라 앉은 상태에서 관찰하였다.

### 관찰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선별된 공간이 모두 비어있는 시간부터 전체 공간의 약 10%가 찰 때까지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인 관찰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 1. 강의실

대규모 학급(수강생이 160명)을 선정하여 관찰자는 맨 뒷좌석 구석에 앉아 들어오는 학생들의 앉는 좌석을 매회 10명의 수강생이 좌석을 선택할 때까지 16회에 걸쳐 기록하였다.

#### 2. 도서관

남녀의 좌석이 별도로 마련된 천안시립도서관(남 90석, 여 150석)에서 열람실 좌석 수의 10%인 9-15명씩을 관찰하여 좌석에 대한 선호패턴을 관찰, 기록하였다.

#### 3. 지하철

상일역에서 출발하여 고덕역과 명일역으로 운행하는 구간, 수서역을 출발하여 대화역과 모란역으로 운행하는 구간, 홍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성수역으로 운행하는 구간, 그리고 인천역을 출발하여 동인천역을 운행하는 구간에서 아침 9-11시, 낮 2-4시, 그리고 저녁 8-10시 사이에 관찰하였다. 즉, 비어 있는 지하철 내의 좌석 선호를 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리는 출퇴근 시간은 피하고 새벽이나 휴일, 또는 환승역에서 처음 출발하는 역을 골라서 기록하였다.

관찰자는 또한 계단과 가까운 양쪽 끝단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철이 진행되는 방향으로부터 5번째 차량에 승차하였다. 5번째 차량의 전체 좌석 중 승객들이 처음 들어와 앉는 좌석을 관찰하되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왼쪽 출입문이 열리는 때만 관찰하였다. 관찰자는 자리에 앉지 않고 차량 한쪽 구석에 서서 차량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의 좌석번호, 승차시간, 남녀 등을 기록하였다.

5명의 관찰자는 한번에 54명이 타는 차량의 10%인 5명이 앉을 때까지 관찰 기록하였고, 이러한 관찰을 5명의 관찰자가 각각 20회씩 하여 모두 457명을 관찰하였다.

#### 4. 버스

50명이 앉을 수 있는 호서대-서울 간 통학용 버스 60대를 관찰하였다. 관찰자는 운전사 옆 보조좌석(보통때는 설치되지 않으나 사전에 관찰자와 운전자가 양해 하에 임시로 설치했음)에 앉아 정원의 10%인 5명의 승객이 버스에 타서 좌석에 앉는 것을 기록하였다. 5명이 앉을 때까지 기록하되 동행자가 있는 경우는 10% 안에 들어 온 경우에도 제외하였는데 동행자들이 있으면 본인의 선호도와는 무관히 동행자와 인접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선호된 좌석을 알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혼자서 타는 사례만을 3주간에 걸쳐 모두 287명을 관찰하였다. 기록시 사전에 마련된 버스 좌석 중 어느 곳에 앉는 지를 표시하되 나중에 탄 사람은 먼저 탄 사람들로 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지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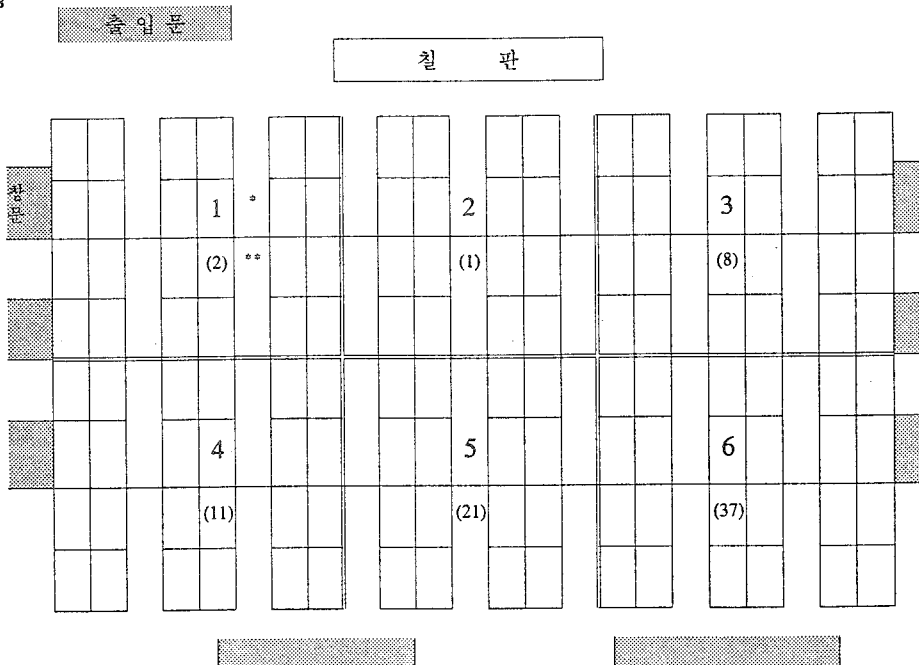
### 5. 교내식당

스스로 음식을 날라서 먹는 교내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 중 문을 여는 시간부터 처음 5명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아 모두 140명의 좌석번호를 관찰하였다. 식당좌석은 큰 식탁에 작은 의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별개의 좌석으로 관찰하기보다는 4개의 식탁을 묶어 하나의 단위로 하여 모두 23개의 관찰단위로 나누고, 이들 단위들을 다시 묶어 배식구로부터 5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 6. 교내매점

5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교내매장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산 후 자리에 앉아 음료나 식사를 하는 자리를 정하는 패턴을 기록하였다. 매회 50명이 앉을 수 있는 매장의 10%인 5명까지만 관찰하여 모두 120명을 관찰하였다. 기록시 남녀의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고, 단독행동과 2인 이상이 함께 왔을 때의 집단행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이 함께 온 경우와 혼자 온 경우를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 A형



### 7. 영화관

선호하는 영화의 제목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동일한 제목을 상영하는 기간 안에 관찰하였고 2층이 있는 경우의 해석상 복잡성을 덜기 위하여 단층만 있는 영화관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정좌석제가 아닌 수원 남문에 위치한 중앙극장을 선정하여 오전 오후 야간의 세 상영시간대 별로 전체 좌석 수 304의 30명씩 10회 관찰하였다. 2인 이상이 오는 경우와 혼자 오는 경우를 구분하되 동성인지 이성과 함께 앉는 지도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 결 과

#### 1. 강의실

강의실의 좌석은 앞쪽과 뒤쪽, 그리고 흑판을 중심으로 왼쪽, 중앙, 그리고 오른쪽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강의실의 문과 창문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좌석 선호도가 다르게 나왔다. 즉, 문에서 먼쪽과 뒤쪽이 선호되었는데, 출입문이 오른쪽에 있는 강의실의 경우(B형 강의실)는 왼쪽 좌석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진 반면( $\chi^2=26.28, df=2,$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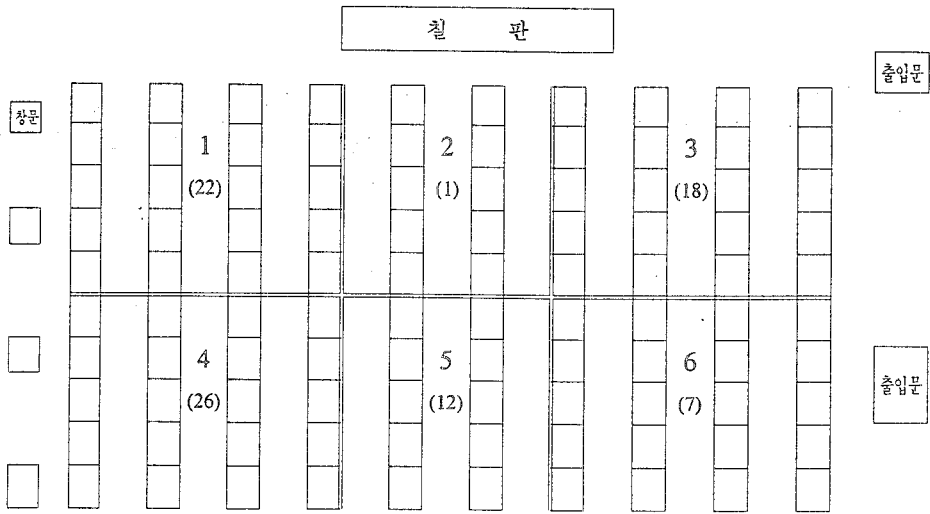


그림 1. 강의실에서의 좌석번호패턴

° 숫자는 구역  
\*\* ( )안은 빈도수

표 1. 강의실내 위치에 따른 선호빈도

A형	좌측	중간	우측	계	B형	좌측	중간	우측	계
앞쪽	2	1	8	11	앞쪽	22	7	6	35
뒤쪽	11	21	37	69	뒤쪽	26	12	7	45
계	13	22	45	80	계	48	19	13	80

$p < .01$ , 출입문이 왼쪽에 있는 경우(A형 강의실)는 오른쪽 좌석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하였다( $\chi^2=42.05$ ,  $df=1$ ,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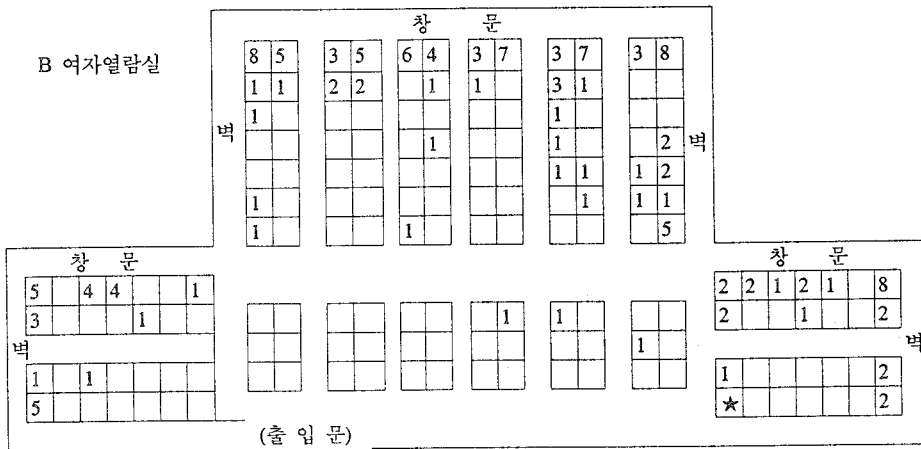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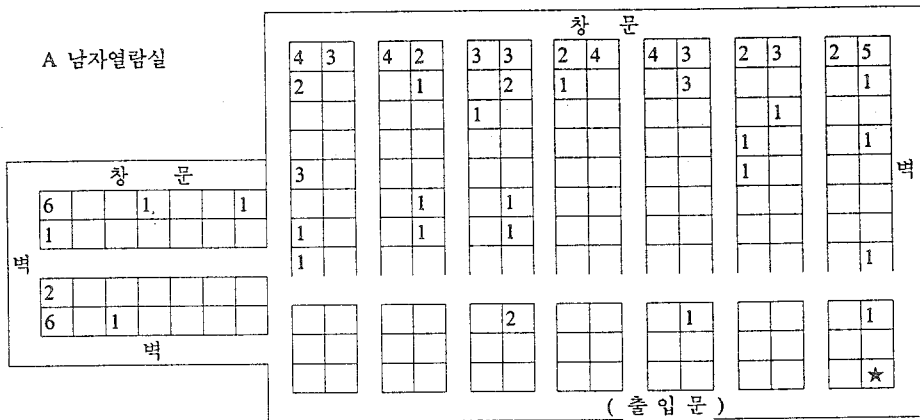
벽과 창문이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가 현저하였다( $\chi^2=77.2$ ,  $df=2$ ,  $p < .001$ ).

2. 도서관

도서관의 좌석은 창문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출입문쪽과 출입문의 반대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의 열람실은 남녀별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으므로 남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남녀 열람실의 좌석들 중 출입문 쪽을 제외한 3면의 가장자리 중 창문에 연한 좌석을 "A형 좌석"으로 하고 창문에 연하지는 않았으나 좌우의 벽과 연한 자리는 "B형 좌석"으로 구분하였다. 결국 A형 좌석과 B형 좌석은 창문에 연하던 벽면에 연하던 가장자리 좌석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관찰자는 출입문 쪽에 연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관찰 및 기록을 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는 그림 2와 표 2에서처럼 출입문으로부터 멀고,

3. 지하철

지하철의 좌석은 그림 3과 같이 열차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문이 열리는 쪽의 반대쪽으로부터 1번에서 27번까지의 좌석으로 문이 열리는 쪽은 28번으로부터 54번까지의 좌석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1, 3, 4, 10, 11, 17, 18, 24, 25, 25, 27, 28, 30, 31, 37, 38, 44, 45, 51, 52, 그리고 54의 좌석은 가장자리의 좌석으로 나머지 좌석은 중간좌석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표 3에서처럼 가장자리에 있는 좌석들이 선호되었고( $\chi^2=175.25$ ,  $df=1$ ,  $p < .001$ ), 특히 문이 열리는 쪽의 반대방향에 있는 가장자리인 17번 좌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문이 열리는 쪽과 반대쪽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는 반대쪽에 대한 선호가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chi^2 < 1$ ).



★ 관찰자의 위치

그림 2. 도서관에서의 좌석선택패턴

표 2. 도서관내 위치에 따른 선호빈도

	창문 및 벽쪽	기 타	계
남 자	67	23	90
여 자	121	29	150
계	188	52	240

표 3. 지하철내 위치에 따른 선호빈도

	가장자리	중간자리	계
문 열리는 쪽	150	48	198
반대쪽	200	39	239
계	350	87	43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22	5	13	13	0	0	0	0	1	18	21	1	1	1	2	8	41	20	5	3	0	2	4	20	20	6	12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㉑	㉒	㉓	㉔
13	8	14	19	5	1	0	0	7	24	18	3	0	0	2	7	18	14	5	0	2	0	4	20	16	4	14

열리는 쪽의 문

그림 3. 지하철에서의 좌석선택패턴

#### 4. 버스

버스의 좌석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운전사의 뒷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왼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의 통로를 건너 오른쪽으로, 앞으로부터 뒤로 이어지는 번호를 1번부터 45번까지 부여하였다. 버스에 대한 관찰에서는 중앙통로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고 다시 앞쪽으로부터 3칸까지는 “앞쪽”으로, 그 다음 5칸은 “중간”으로, 나머지는 “뒤”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분석시 중앙통로로부터 좌우구분은 버스의 “창가”(예: 1, 4, 5, 8, 9 등)와 “내측”(예: 2, 3, 6, 7, 10, 12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내측보다는 창가를 그리고 뒤쪽보다는 앞쪽이나 중간부분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chi^2=9.731, df=2, p<.01$ ).

#### 5. 식당

식당의 좌석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식당 출입구로부터 안쪽으로, 그리고 배식구로부터 앞에서 뒤로 23개의 식탁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배식구로부터 가까운 순서로 1에서 5까지 범주화하여 분석

운전자	관찰자		
1 (13)	2 (1)	(59)	3 (7)
5 (7)	6		4 (6)
9 (4)	10		7 (2)
13 (10)	14		8 (12)
17 (12)	18		11
21 (8)	22	(52)	12 (7)
25 (4)	26		15
29 (3)	30		16 (3)
33 (2)	34	(38)	19
37 (5)	38		20 (7)
41 (4)	42		23
계	72	149	24 (2)
			27
			28 (6)
			31
			32 (12)
			35
			36 (5)
			39 (4)
			40
			44
			45 (3)

그림 4. 버스에서의 좌석번호패턴

표 4. 버스내 위치에 따른 선호빈도

	창가	내측	계
앞	49	10	59
중간	52	0	52
뒤	34	4	38
계	135	14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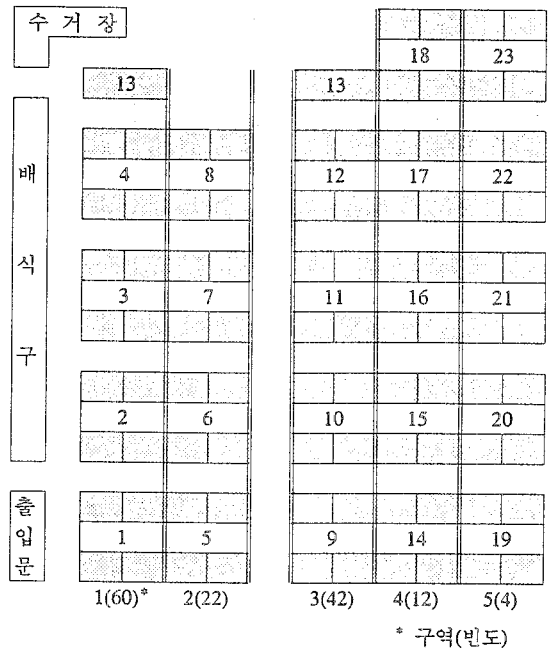


그림 5. 식당에서의 좌석번호패턴

표 5. 식당내 위치에 따른 선호빈도

	구역					계
	1	2	3	4	5	
남자	47	13	21	5	3	89
여자	13	9	21	7	1	51
계	60	22	42	12	4	140

하였다. 식당의 좌석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의 좌석에서 처럼 독립된 좌석이 아닌 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범주화를 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배식구로부터 가까운 곳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그 다음은 통로를 연한 중간부분이 선호되었다.

#### 6. 매점

매점에서의 좌석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판매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쪽으로 3등분하고 안쪽으로부터 통로쪽으로 2등분을 하여 분석하였다. 판매대로부터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는 편의성을 통로로부터 먼곳에 대한 선호는 사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표 6에서처럼 판매대로부터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의 선호경향성을 보였고, 통로로부터 먼곳에 위치하려는 경향도 보였다.





상황에서만 일어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벽쪽이나 창가에 있는 높은 밑도의 좌석들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보인 결과들은 조명이나, 냉난방의 시설 등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요인들이 중요할 때는 창가나 벽쪽이라는 요인들보다 더 중요한 개인공간 선호의 결정적일 수 있다.

지하철의 좌석들 중 가장자리에 있는 좌석들이 선호되었고, 특히 문이 열리는 쪽의 반대방향에 있는 가장자리인 17번 좌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 타인과의 접촉을 적게 하려는 의도와 승하차시의 편리함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승하차 시간대 별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에서의 이러한 패턴이 안정적이라면 제작시 가장자리 부분의 의자들은 중앙에 있는 의자들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좌석으로부터 맞은 편에 있는 광고의 효과가 더 크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승객들이 내리기 위하여 대기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출입구 쪽의 광고비가 가장 비싸게, 그리고 좌석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자리 좌석의 맞은 편위에 설치된 광고의 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버스의 좌석들 중 내측보다는 창가를 그리고 뒤쪽보다는 앞쪽이나 중간부분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인 것은 타인들과 원치 않는 접촉을 피할 수 있고 전망이 좋은 창가를 선호하였다. 버스가 운행 중에 받게 될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거의 모든 버스들에서 창가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커튼이 마련되어 있어 그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듯하다. 두 번째 이상의 승차자들이 먼저 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앉는 지를 분석한 결과 거리는 5칸이상의 경우가 절반을 넘어 빈 버스에 탈 때는 가급적 떨어져 앉으려는 것을 보였다. 이 같이 떨어져 앉으려는 경향성은 남자보다도 여자들에서 더 높았다.

식당의 좌석들 중 배식구로부터 가까운 곳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그 다음은 통로를 연한 중간 부분

이 선호된 것은 배식구로부터 식사를 날라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앉으려는 편의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들은 배식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하였고, 여학생들은 중간에 있는 통로를 연한 곳의 더 높은 선호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배식구로부터 가깝기는 하나 보다 사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첫번째 통로와 인접된 좌석을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도 편의성보다는 사밀성에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매점에서의 좌석들 중 판매대로부터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를 보인 것은 편의성을, 통로로부터 먼곳에 대한 선호를 보인 것은 사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극장의 좌석들 중 출입문이 오른쪽에 있는 극장에서 출입문의 반대쪽인 왼쪽과 스크린으로부터 뒷부분 좌석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 이는 영화관에서는 특히 사밀성이 요구되는 오락행동이라는 점에서 뒷쪽 좌석에 대한 선호는 예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외국 영화를 상영시 한글 자막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 오른쪽 좌석에 대한 선호를 보이리라고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아마도 출입구나 오른쪽에 있어 그러한 사밀성효과가 보이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영화와 국내영화를 구분하여 어떤 요인들이 영화관에서의 좌석선호에 영향을 주는 지를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장소에 대하여 질문지로 얻어진 결과들이 관찰을 통하여 검증되는지를 보았는데 지정좌석제가 아닌 강의실에서 앞쪽보다는 중간 이후에 더 높은 좌석선호를 보이고, 교내매점에서는 상품 진열대로부터 뒤까지 배열된 좌석들 중에서 통로쪽이나 뒤보다는 앞 좌석이 선호되었으며, 버스에서는 통로쪽보다는 창가에 더 높은 선호를 보였고, 지하철에서는 좌석 중 가장자리 좌석이 중앙의 좌석보다 선호가 높았고, 도서관에서는 열람실 내의 좌석들 중 안쪽의 좌석이 선호되고 출입구쪽과 통로쪽에는 낮은 선호를 보였으며, 영화관에서는 주변보다는 중앙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의실 장면에서 출입구의 반대 쪽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버스에서 뒤쪽보다는 앞쪽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는 쪽과 그 반대 쪽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영화관에서 자막이 있는 쪽에 대한 선호를 볼 수 없는 점 등은 예상 밖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호되는 좌석을 전체 공간의 10%로 정의하여 특정한 공간을 일찍 찾는 사람들의 좌석 선호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다. 늦게 특정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다른 패턴을 보일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 이 연구에서는 전체 공간의 10%까지를 관찰하였으나 사실상 맨 처음 특정한 공간에서 좌석을 점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의미의 선호라기 보다는 먼저 좌석을 차지한 사람의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좌석들 중에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선점한 사람이 나중 사람의 선택에 장애를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공간을 택한 사람들의 순서에 따라 다른 패턴이 있는지, 또한 피 관찰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왜 특정한 자리를 택하였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관찰된 결과에 덧붙여 질문지를 통한 선택의 이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별된 일부 공간에 대한 선호패턴을 탐색적으로 보았을뿐 전반적이고 철저한 설명은 불가능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학교, 도서관, 고내매점, 교내식당, 버스, 전철, 영화관 등 학생들이 일상생활 중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였을뿐 일반인들이 상용하는 장소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 또한 각 공간이 좌석배치 이외의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속성이 주는 심리적인 기능과 의미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탐색적인 연구가 갖는 중요한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7개 공간들에서 개인공간의 확보와 사밀성의 유지의 두 차원상 어느 한 차원이 더 중요할 수 있으나 구분하지 않은채 생태학적인 선호패턴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일반인이 더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좌석선호나 이 연구에서 확인된 일부 장소에서의 좌석선호가 개인공간의 확보와 사밀성의

차원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보다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통하여 우리 문화권에서 보이는 특이한 선호패턴이 밝혀진 후에는 앞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들을 설명하고,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여러 이론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선행연구들에서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여기는 개인거리는 얼마인지, 그리고 타인이 그 거리내로 침입하였을 경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연구하여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공간을 측정하되 특정한 사람이 선호하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참조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찰자가 보는 상대적인 거리만을 재었다. 그러나 특정한 공간에서 선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호선(1983). 대학도서관 열람실의 실내물리적 환경요인이 사용자의 의식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홍섭 역(1995). 환경심리학. 서울: 성원사.
- 임만택 역(1993). 환경심리론. 서울: 태림문화사.
- 임승빈(1992). 환경심리 행태론. 서울: 보성문화사.
- 정무웅 역(1990). 건축환경의 의미론. 서울: 대광문화사.
- Aiello, J. R., & Aiello, T. D. (1970). Development of personal space: Proxemic behavior of children six to sixteen. *Human Ecology*, 2, 177-189.
- Albert, S., & Dabbs, J. M.(1970). Physical distance and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65-270.
- Altman, I.(1975).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Monterey, CA.: Brooks/Cole.
- Altman, I.(1977). Privacy regulation: Culturally universal or culturally specific? *Journal of Social Issues*, 33, 66-83.
- Becker, F. D., Sommer, R., Bee, J., & Oxley, B.(1973).

- College classroom ecology. *Sociometry*, 36, 514-525.
- Duke, M. P., & Nowicki, S., Jr.(1972). A new measure and social learning model for interpersonal distance.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6, 1-16.
- Evans, G. W.(1974). An examination of the information overload mechanism of personal space. *Man-Environment System*, 4, 61.
- Felipe, N., & Sommer, R.(1966). Invasion of personal space. *Social Problems*, 14, 206-214.
- Hall, E. T.(1963a). A system for the notation of proxemic behavior. *American Anthropologist*, 65, 1003-1026.
- Hall, E. T.(1966). *The hidden dimension*. New York: Doubleday.
- Hayduk, L. A.(1978). Personal space: An evaluative and orienting ov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85, 117-134.
- Hediger, H.(1950). *Wild animals in captivity*. London: Butterworth.
- Knowles, E. S.(1973). Boundaries around group interaction: The effect of group size and member status on boundary perme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27-332.
- Little, K. B.(1968). Cultural variations in social schem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1-7.
- Love, K. D., & Aiello, J. R.(1980). Using projective techniques to measure interaction distance: A methodological no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6, 102-104.
- Scherer, S. E.(1974). Proxemic behavior of primary school children as a function of their socioeconomic class and subcul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800-805.
- Sommer, R.(1959). Studies in personal space. *Sociometry*, 22, 247-260.
- Sommer, R.(1965). Further studies of small group ecology. *Sociometry*, 28, 337-347.
- Sommer, R.(1969). *Personal spac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Sommer, R.(1972). *Design awareness*. San Francisco: Rinehart Press.
- Sommer, R., & Ross, H.(1958). Social interaction on a geriatrics war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 128-133.

## An Explorative Study of the Seat Preference Patterns in 7 Settings

Ki-Won Hong

Dept. of Industrial Psychology, Hoseo University

Patterns in the use of personal space were observed in selected settings: the classroom, library, subway, bus, snacksar, cafeteria, and theater. Seats far from the door and the lectern were preferred in the classroom. In the library, seats far from the door and near from the walls were preferred. The outer rather than middle seats on the subway filled first, with no observable differences between the opposite and the same-side seats from the sliding doors. Passengers on the bus chose window seats in the front and middle over the aisle and the rear section. Students settled at table near the serving line in the cafeteria and closet to the counter in the snack bar, indicating perhaps of a choice of convenience, while their preference for inside seats away from the corridor possibly denote a desire for privacy. For theater goers, the seats of choice were opposite the entrance and in the upper-middle section.